

바로크 악기로 듣는 현대음악

4~5일 나주현대음악제

제3회 나주현대음악제가 4~5일 오후 7시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나주시와 무지크바움의 공동주최하는 이번 음악제에서는 지역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바로크 음악과 현대음악을 소개한다.

4일에는 바로크 앙상블 단체 '알텐바움'이 공연을 갖는다. '알텐바움'은 우리나라 최초로 리코더 유학을 다녀온 조진희씨가 리더를 맡고 있는 단체로 바로크 바이올린, 바로크 첼로, 기타가 어우러진 4중주단이다.

알텐바움은 바로크 시대 작곡가인 코렐리의

'바이올린과 리코더를 위한 소나타 D단조', 현대음악가 브레스겐 등의 음악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음악회를 위해 작곡가 김무섭에게 위촉한 곡을 초연한다.

5일에는 서울대학교 출신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타악기 앙상블 '리드미코'의 무대가 마련된다. 연주 레퍼토리는 크세나 키스, 웨스트레이크 등의 작품이며 위촉곡인 백영은 교수의 '술 이야기'가 초연된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숙명여대 작곡가 이만방 교수가 '즉흥곡'을 협연한다. 문의 061-330-875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눈에 보이는 대상을 사실 그대로

'목우회' 초대전, 28일까지 함평미술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구상미술그룹 목우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정흥기)는 오는 28일까지 함평 월야기산미술관에서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조규일·노의웅·김신석·서봉한·김재형·김종욱·김충곤·김길성·이우진·김영순·손영선·김형돈·윤석수·김재균·김영하·



정흥기 작 '계곡정취'

윤태환·최강희·정다운·김왕현·문춘길·이영숙·이신자씨 등이 참여한다.

송영선씨는 단아한 색감으로 바다를 표현한 '풍경'을 전시하고, 윤석수씨는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사랑으로-코스모스'를 발표. 또 김길성씨는 소나무 숲의 정적을 화풍에 담은 '송림'을 선보이고, 김왕현씨는 청동으로 남자의 꿈을 빛은 '우리의 꿈은 저곳에'를 출품했다.

목우회는 지난 1958년 창립된 이래 매년 2~3차례의 회원전을 갖고 있으며 지난 1963년 처음 시작된 공모전은 60년대 이후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더불어 구상미술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또 1977년부터 프랑스의 '르 살롱'과 '그랑팔레'에 정기적으로 출품하는 등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회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 문의 061-322-289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테마여행 백제 문화탐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3~14일

가족과 함께 백제 문화를 만끽하세요.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오는 13~14일 백제의 옛 도읍인 충남 공주 일대를 둘러보는 '테마여행 백제문화탐방'을 떠난다.

최근 부여에 문을 연 국내 최초의 백제사 전문 박물관인 '백제문화단지(백제역사문화관)', 1400년 전 사비성, 능사, 생활문화마을, 위례성, 고분공원 등 백제사가 담긴 현장을 차례로 방문한다.

오는 5일까지 선착순 40명을 모집하며 숙박비와 입장료 등이 포함된 참가비는 어른 10만원, 청소년 8만5천원이다. 문의 062-234-272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MAMMA MIA!

12월 3~5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중년관객들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공연장 순식간에 콘서트장으로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관객들을 만나는 건, 푸른 물결을 형상화한 무대 가립막이다. 오케스트라가 아바의 히트곡들을 메트로로 엮어 연주한 후 막이 오르고, 주인공 소피가 청아한 목소리로 'I have a dream'을 부르면 관객들은 그리스 지중해의 어느 한적한 섬으로 여행을 떠난다.

전 세계 4000만 관객을 사로잡았고, 2004년 초연 후 우리나라에서만 1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맘마미아'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히트 뮤지컬이다.

지난달 29일 과천 시민회관. 공연장은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특히 다른 뮤지컬 공연장과 달리 관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년 관객들은 젊은이들 못지 않은 열정을 뽐내며 공연을 마음껏 즐겼다.

남경주·최정원 등 노래·연기 일품

커튼콜 후 이어진 앙코르공연 압권

스웨덴 인기 그룹 아바의 히트곡 23곡을 엮어 만든 '맘마미아'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으로 뮤지컬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인터라 관객들의 몰입도가 높았다.

'맘마미아'에는 지나버린 청춘을 아쉬워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중년 여성들의 우정이 있고, 로맨스가 있다. 여기에 결혼을 앞둔 모녀의 애절한 정까지 어우러져 가슴 따뜻한 감동을 전해준다.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는 나무랄 데 없었다. 한국 뮤지컬계의 대표 디바 최정원은 자존심 강하면서도 예민한 감성의 주인공 도나 역에 안성맞춤이었다. 특히 작품 막바지에 그녀가 폭발적인 성장으로 자신의 진심을 담아 'The winner takes all'을 부를 때 객석에서는 탄성이 쏟아졌다.

친구 로지 역의 이경미는 초연 때부터 무대에 섰던 오리지널 멤버로서의 역량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작품에 맞닿은 웃음을 제공하는 그녀의 연기는 유쾌하고 저음이 돋보이는 노래 역시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건강상의 이유로 공연에서 빠진 원년 멤버 전수경 대신 타나 역을 맡은 황현정은 능청스런 연기와 안정감 있는 노래로 전수경의 자리를 충분히 메꿨다.

이번 공연부터 합류한 남경주는 오랜 파트너 최정원과 'SOS' 등 이중창을 깔끔하게 들려주

며 여주인공 소피 역의 박지연 역시 맑은 음색이 인상적이었다.

타 뮤지컬 처럼 화려하거나 변함이 많지 않지만 깔끔하고 세련된 무대와 다양한 조명, 군무진들의 완벽한 호흡도 눈길을 끌었다.

극에 삽입된 뮤지컬 넘버들은 너무나 유명한 곡들이라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게 된다. 친구 도나를 위로하며 로지와 타나가 함께 부르는 'Chiquita'나 'Super Trouper'는 세 사람의 오랜 우정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또 결혼식 전날 딸 소피의 머리를 빗겨 주며 도나가 부르는 'Slipping through my fingers'는 딸을 둔 부모나, 부모를 떠나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모든 딸들의 입장에서 가슴이 뭉클해진다.

'맘마미아'의 압권은 커튼콜 후 이어지는 앙코르 공연이었다. 이 무대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화려한 의상을 입고 도나, 타나, 로지가 등장해 'Dancing queen'을 부르며 남자 주인공들까지 합세해 'Waterloo'를 열창하자 공연장은 순식간에 콘서트장으로 변신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1000여명의 관객들은 춤을 추며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하며 가을 밤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

지난 2008년 광주에서 초연됐던 '맘마미아'는 오는 12월 3~5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티켓 가격 12만원, 10만원, 7만원, 5만원. 문의 062-220-05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골프존 GOLFZON

아프리카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OPEN

광주에 이런 스크린 골프존은 없습니다!!
직접 오셔서.....

OPEN 기념
등록회원특전
라카무료이용
스크린이용권 증정
연회원 가입시 골프화 증정

- 골프존 대형룸 6실
- 차타시설
- 단체룸 부탕기능
- 연습장 12타석
- 전타석 분석 시스템
- 클럽 무료 대여
- 홀인원 이벤트
- 온라인 골프대회

방림지구대 1
무등 4차—
입구

남부경찰서 1

무등3차

동아중
고등학교

봉선동 무등 4차 복합상가 지하

예약문의 : 062)671-8900

명품시계 전남/북 총판

A/S는 유명백화점 갤러리어클락 매장과 공유됩니다.

GALLERY O'CLOCK

갤러리어클락 광주점
TEL. 062 233 2251
광주 동구 충장로2가 25-1번지(학생회관 후문 다이소 옆)

* 본 매장은 정품만을 취급합니다.
* 명품시계 취급점 모집

CITIZEN TechnoMarine FENDI TIMEX
Paul Smith WATCH CELINE COACH NIXON
Salvatore Ferragamo BOSS
AIGNER D&G